

2019년 12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사상 첫 9,000pt 상회 마스터카드, 연말 쇼핑시즌 매출 3.4% 증가

미 증시 변화요인: 종목 차별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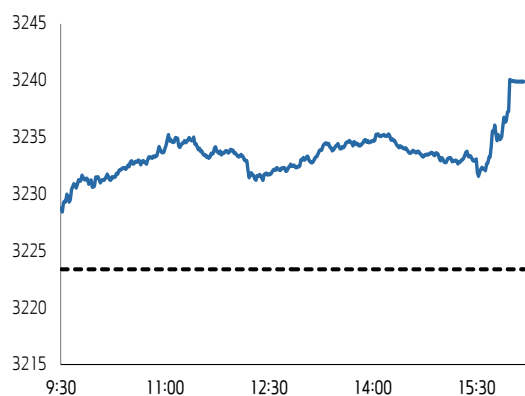
미 증시는 마스터카드가 보도자료로 연말 쇼핑시즌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특히 프리미엄 고객 급증과 연말 쇼핑시즌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을 언급한 아마존이 급등한 가운데 애플 등 대형 기술주 및 금융주가 상승을 주도. 반면, 중소형 종목들 대부분은 부진해 투자심리는 위축(다우 +0.37%, 나스닥 +0.78%, S&P500 +0.51%, 러셀 2000 -0.02%)

마스터카드는 자동차를 제외한 11~12 월 연말쇼핑시즌 매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발표. 특히 온라인 매출이 18.8% 증가하며 작년 발표치인 18.4%보다 개선돼 이를 주도. 카테고리별 온라인 매출 증가를 보면 의류가 전년 대비 17%, 보석이 8%, 전자제품이 7%, 백화점도 9% 증가. 대체로 미국의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 실제 아마존(+4.45%)은 추수감사절에서 성탄절까지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언급하며 급등해 미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끔.

물론 이 수치는 전미소매협회(NRF)가 전망했던 전년 대비 4.0% 증가에는 미치지 못함. 다만, 온라인 매출은 어도비가 발표했었던 전망치인 전년 대비 14.1% 증가를 상회. 특히 온라인 매출의 승자인 아마존(+4.45%), 애플(+1.98%)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대형 기술주 및 금융주가 미 증시 상승을 주도. 그러나 그 외 종목군들 월마트(+0.01%) 등 오프라인 중심의 소매유통업종을 비롯해 중소형 종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종목 차별화가 뚜렷한 모습.

결국 미 증시 상승은 예상보다 부진한 연말 쇼핑 시즌 매출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슈를 우호적인 면만 보는 투자자들의 행동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요인. 특히 부정적인 소식이 없는 가운데 마스터 카드와 아마존의 발표로 인한 소비 둔화 우려 완화, 연준의 금리인상 없을 것이라는 약속, 트럼프 발언으로 인한 미-중 무역협상 낙관적인 전망 등이 이러한 상승을 이끄는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상승률(%)	Close	D-1	지수	상승률(%)	Close	D-1
KOSPI	+0.36	2,197.93	홍콩항셍	27,864.21	-0.15		
KOSDAQ	+2.06	652.07	영국	7,632.24	+0.11		
DOW	+0.37	28,621.39	독일	13,300.98	-0.13		
NASDAQ	+0.78	9,022.39	프랑스	6,029.55	+0.00		
S&P 500	+0.51	3,239.91	스페인	9,661.80	+0.02		
상하이종합	+0.85	3,007.35	그리스	912.52	+2.29		
일본	+0.60	23,924.92	이탈리아	23,898.42	-0.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아마존 +4.45%

아마존(+4.45%)은 연말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비조프 CEO의 발언에 힘입어 급등 했다. 애플(+1.98%)은 아이폰11, 에어팟 등 관련 제품들이 연말 쇼핑 시즌 판매량 상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으로 강세를 보였다. 아이로봇(+3.18%)은 아마존이 연말 매출에서 iRobot의 Roomba 675 로봇 진 공청소기가 가장 많이 팔린 가전 제품 중 하나로 선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반면, 월마트(+0.01%) 등 오프라인 위주의 매출이 큰 소매유통업체들은 부진했다.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인 베스트바이(-0.09%)는 아마존에 비해 미진한 모습을 보이자 부진했다.

백화점 업체인 콜스(+0.79%)와 물류회사인 UPS(+0.60%)는 아마존의 반품 처리 제공을 통해 매출 증 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티파니(+0.02%)는 중국 소비 증가로 연말 매출 판매 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환했다. JP모건 (+1.06%), 골드만삭스(+0.57%) 등 금융주는 지수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로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1.34%)은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8%	대형 가치주 ETF(IVE)	+0.26%
에너지섹터 ETF(OIH)	-0.07%	중형 가치주 ETF(IWS)	+0.23%
소매업체 ETF(XRT)	+0.72%	소형 가치주 ETF(IWN)	+0.10%
금융섹터 ETF(XLF)	+0.55%	대형 성장주 ETF(VUG)	+0.84%
기술섹터 ETF(XLK)	+0.75%	중형 성장주 ETF(IWP)	+0.16%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75%	소형 성장주 ETF(IWO)	0.00%
인터넷업체 ETF(FDN)	+0.96%	배당주 ETF(DVY)	-0.07%
리츠업체 ETF(XLRE)	+0.6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66%
주택건설업체 ETF(XHB)	-0.1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3%
바이오섹터 ETF(IBB)	-0.74%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0.07%	하이일드 ETF(JNK)	+0.16%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07%
반도체 ETF(SMH)	+0.27%	Long/short ETF(BTAL)	+0.0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7.11	+0.01%	+1.84%	+5.22%
소재	385.48	+0.41%	+1.68%	+2.47%
산업재	691.59	+0.23%	+1.39%	-0.30%
경기소비재	991.42	+1.43%	+1.91%	+3.25%
필수소비재	647.39	+0.14%	+1.05%	+2.07%
헬스케어	1,191.73	-0.12%	+1.28%	+3.88%
금융	512.59	+0.55%	+0.56%	+2.90%
IT	1,614.34	+0.74%	+2.38%	+4.87%
커뮤니케이션	183.42	+0.81%	+1.52%	+3.18%
유틸리티	325.96	+0.18%	+0.02%	+2.34%
부동산	238.28	+0.54%	+1.90%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KOSPI 배당락 2.09%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2%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70 계약 순매수 했으며 0.15pt 상승한 291.6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0.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연말 쇼핑 시즌의 승자인 아마존과 애플이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그 외 종목들의 경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뚜렷한 종목 및 업종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다. 특히 전체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재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다. 한편, 애플은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가장 많이 찾는 선물로 iPhone 11, AirPods, Apple Watch 등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거래소는 KOSPI 지수의 2019 년도 현금배당락 지수는(2,197.93p) 대비 46.0p(2.09%) 낮은 2,151.93p 로 추정했다. 한편, KOSDAQ 지수도(652.07p) 전일 대비 4.48p(0.68%) 낮은 647.59p 로 추정했다. 작년의 경우 2%의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1.27% 하락 출발하는 등 배당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을 감안 하락폭은 배당락 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 1 차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일부 심리지표 개선 및 서명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미 증시 특징처럼 지수 전체 움직임 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예상과 부합한 고용지표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3.5 만건) 보다 감소한 22.2 만건을 기록해 예상(22.3 만건)과 부합했다. 4 주 연속 신청건수는 지난주(22 만 5,750 건) 보다 소폭 증가한 22.8 만건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한편, 미국 석유협회가 지난 주 미국의 원유 재고에 대해 79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국경 종립지역의 원유 생산을 합의하자 일부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영향력은 제한 되었다. 1 월 1 일부터 OPEC+ 산유국들이 하루 170 만 배럴 감산을 시작한다는 점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이어지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완화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최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여파로 약세를 보였으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며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다. 특히 유예기간을 두고 EU 와 마찰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이슈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 파운드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국채금리는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유럽 증시가 박싱데이로 대부분 휴장인 가운데 거래량이 감소하며 관망세가 짙은 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한편,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3 배) 보다 소폭 증가한 2.47 배를 기록했으나, 간접입찰이 12 개월 평균(60.8%)을 하회한 59.4%를 기록해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LME 시장 휴장으로 구리 및 비철금속은 변화가 없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5%, 철근은 0.86%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1.68	+0.93	+1.36	Dollar Index	97.557	-0.08	+0.18
브렌트유	67.92	+1.07	+2.64	EUR/USD	1.1101	+0.07	-0.19
금	1,514.40	+0.64	+2.41	USD/JPY	109.62	+0.22	+0.23
은	17.990	+0.77	+5.52	GBP/USD	1.2999	+0.29	-0.08
알루미늄	1,814.00	휴장	+2.08	USD/CHF	0.9815	+0.11	+0.31
전기동	6,215.00	휴장	+0.66	AUD/USD	0.6949	+0.42	+0.91
아연	2,274.00	휴장	-1.17	USD/CAD	1.3109	-0.39	-0.12
옥수수	388.50	+0.26	+0.39	USD/BRL	4.0535	-0.48	-0.28
밀	549.00	+1.48	+0.14	USD/CNH	6.9921	-0.05	-0.10
대두	946.50	+0.19	+0.64	USD/KRW	1161.80	-0.18	-0.60
커피	127.30	-1.62	-4.43	USD/KRW NDF1M	1160.45	-0.03	-0.14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893	-0.69	-2.77	스페인	0.428	휴장	-1.60
한국	1.639	+0.70	+2.90	포르투갈	0.400	휴장	-0.50
일본	-0.011	+0.80	-1.40	그리스	1.414	-0.10	+4.30
독일	-0.242	휴장	-0.70	이탈리아	1.425	휴장	+4.40